

오리농장 HACCP 적용 기준서 작성



축산물입해요소중심관리기준원
농장2팀 이경순 팀장

HACCP 적용을 비적용 농장과 비교해본다면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겠지만 아마도 가장 큰 차이점은 기준서 그것도 '선행요건프로그램' 과 'HACCP' 이라는 두 권으로 구성된 기준서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농장에서 HACCP 적용을 하기 위해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역시 기준서 작성일 것이다.

이번호에서는 기준서는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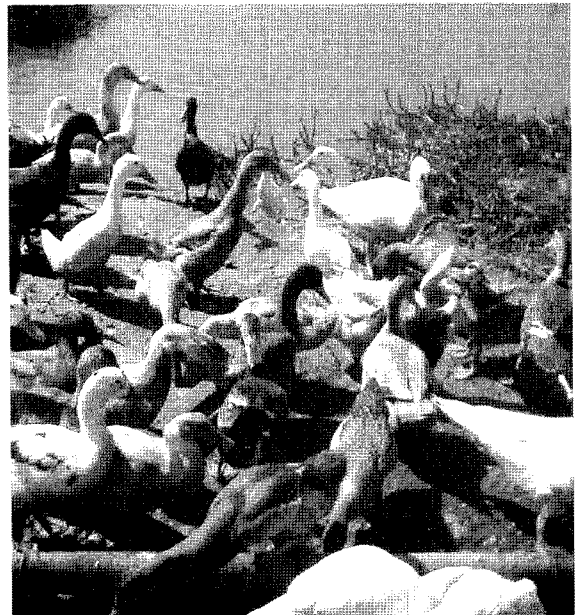
사실 사양관리에 대한 지침이나 매뉴얼 등은 기존에 여러 전문가들이 고심하고 연구 끝에 내놓은 좋은 서적들이 많이 있다. 그 서적들에는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면 질병예방을 하고, 폐사율을 줄여 생산성을 높일수 있는가 등에 대한 좋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반드시 그 내용이 모든 농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HACCP 적용 농장의 기준서는 내 농장(My Farm)만의 관리방법을 기술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준서를 작성할 때에는 이상적인 내용을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농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내용들을 담도록 한다.

HACCP을 적용 중인 농장을 방문하면 기록을 함으로써

머릿속으로만 막연히 농장운영하던 때에 비추어 농장운영이 한눈에 보이고 그에 따른 문제점이나 개선점이 같이 보이더라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된다.

기준서 작성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늘 하던 일들이지만 농장에서 관리하는 내용들을 나열하고 문서화함으로써 문자화되기 전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농장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한눈에 볼수 있게 된다.

막연히 농장에서 해오던 행동들을 하나 하나 구체화시





축산수첩

오리농장 HACCP 적용 기준서 작성

킴으로써 그냥 지나칠수 있었던 소소한 일들도 한번 점검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기준서를 작성하는 것은 '막연히 이렇게 운영하면 좋을 것이다'라는 내용을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 농장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술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서화 작업이라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다. 무엇보다도 내 농장의 모든 내용들을 손글씨로 일일이 기술한다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고 컴퓨터 사용 또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HACCP 적용을 하면서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 하지만 컨설턴트의 한계는 직접 농장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따라서 기준서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농장주와 컨설턴트 간의 농장운영에 대한 무수한 대화와 깊은 고민이 오고가야 만이 실질적인 그 농장만의 기준서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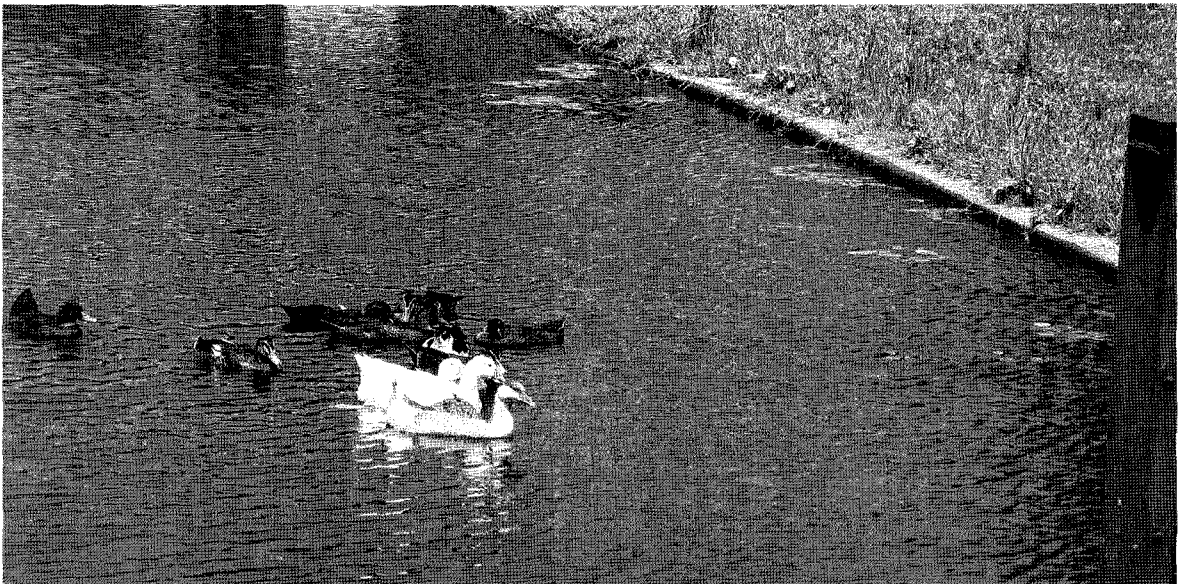
앞서 언급하였듯이 HACCP 적용 농장에서 작성하는 기

준서에는 크게 '선행요건프로그램 기준서'와 'HACCP 관리 기준서' 두가지 형태로 나뉘어진다.

HACCP 관리 기준서는 HACCP 7원칙 12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지기 때문에 12절차에 따른 형식을 갖추면 된다. 하지만 선행요건프로그램 즉 농장 전반의 관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기준서에는 사실 별도의 정해진 양식이란 없다. 그래서 현재 작성중인 양식들은 농장 HACCP을 적용하기 위한 용역사업의 결과물로 나온 매뉴얼을 기본으로 작성이 되었다라고 보면 될 것이다.

기준서 내용에는 법적으로 농장에서 운영해야하는 사항, 농장 관리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실시하는 내용과 HACCP을 적용하면서 실시하여야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다.

선행요건프로그램 기준서의 구성을 보면 크게 차단방역 관리, 농장시설관리, 농장위생관리, 사료·동물용의약품·음수관리, 질병관리와 반입 및 출하관리로 나누어



진다. 차단방역관리서에는 내 농장의 차단방역을 위해 출입자, 차량, 물품 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하는 내용이 들어간다. 출입자에 대한 복장 착용 기준, 출입제한 요건사항(외국 여행 후 몇일 이내 농장 출입금지 등), 차량 및 사람의 출입절차, 반입되는 물품의 관리 기준 등 일반적인 내용이지만 그 농장에서 실시하는 형태로 기술이 되어져야 한다. 예를 들면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농장의 경우에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출입관리, 자국으로부터의 우편물에 대한 방역관리 내용도 포함이 될 것이다.

농장 시설관리기준서에는 농장의 시설이 오작동 되어 농장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관리하는 기준을 만들고 또 그대로 관리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생산성과 영향을 미치는 급이기 · 급수기 · 환기 등의 시설관리, 소독 및 세척설비들의 관리, 온습도 관리, 분뇨처리와 관련된 시설 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농장 위생관리기준서에는 '축사는 혐오시설이다' 라는 개념을 탈피하고, 농장을 보다 깨끗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농장에서 하고 있고 때로는 해야하는 사항들을 기술한다. 사료 · 동물용의약품 · 음수관리 기준서에는 내 농장에서 먹고 있는 사료와 물, 내 농장에서 사용중인 약품에 대한 관리 기준을 기술한다.

사실 이 부분의 관리는 CCP 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게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얼마나 자주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기술이 필요하다. 질병관리 기준서에는 내 농장의 질병 발생 방지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백신프로그램, 정기적인 질병 검사 의뢰 항목, 임상관찰의 주기 등이 명시가 된다.

질병관리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놓으면 농장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손쉽게 관리가 될 것이며, 또 농장의 질병 발생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는 부분을 개선하고 농장 관리 방법을 바꿀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반입 및 출하관리기준서에는 내 농장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오리 에 대한 관리 기준을 기술한다.

도입오리는 어떤 기준의 것을, 언제 들여오며, 농장으로 반입시 확인해야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출하오리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이다. 출하기준, 출하되고 나서 오리는 어떻게 관리가 될 것인지 등에 대한 기준을 기술한다.

이제까지 설명한 기준서 내용들은 사실 어느 것이 반드시 먼저여야 한다는 것은 없고 다만 일반적으로 차단방역부터 위에서 언급한 순서대로 기술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내용을 큰 구분을 위해서 제목을 차단방역관리, 농장 위생관리 등으로 붙인 것이고 농장에서 기준서를 즉, 내 농장의 행동절차를 작성해보면서 제목이나 문구 등은 얼마든지 바꿀수 있다.

이제까지 기준서 특히 선행요건프로그램 기준서 작성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기준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형식이나 틀이 아닌 과연 내 농장(My Farm)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가 하는 것이다.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 그렇게 기준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내 농장의 관리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혹은 개선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개선해 나갈수 있는 실제로 농장 운영에 도움이 되는 기준서를 만들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